문화세계의 창조

교훈 학원의 민주화 사상의 민주화 생활의 민주화

대학주보

경희대학교 대학주보사

발행 편집인 조영식
주간 김이석우
편집장 엄홍준
인쇄인 허수남

서울캠퍼스(우:130-701) 서울 동대문구 회기동1 ☎(961)0095, (963) 5849 FAX(963) 5849
수원캠퍼스(우:449-701) 경기도 용인군 기흥읍 서천리1 ☎(741) 5702 (교환:2056, 2860) 직통 (0331)280-2056, 2860 FAX(0331) 280-2238

제1011호 〈주간〉 1992년 11월 9일 (월요일) THE UNIVERSITY WEEKLY 1955. 10. 27 제3종우편물(가)급인가 1964. 1. 등록번호 다-12 (1955년 5월12일 창간)

천준호군 총학생회장 당선

64.6% 투표율에 3천3백27표 획득, 총여장 윤해선양

서울캠퍼스 제25대 총·부학생회장에 천준호(사학·4), 권재철(법대 행정·4)군이 압도적 표차로 당선됐다.

지난 5일 개표한 결과 총유권자 8천3백23명중 5천3백78명이 투표해 전체 64.6%의 투표율을 보인 이번 선거에서 천준호, 권재철군은 지지율 61.9%인 3천3백27표를 획득, 1천9백16표를 얻은 기호2번 정 정제혁(경제·3), 부 김기수(철학·3) 후보를 제치고 제25대 총학생회장단이 됐다.

이번 선거에서는 9대가 1백55명중 1백49명이 투표해 96.1%의 가장 높은 투표율을 보였으며 정경대가 2천2백37명중 1천2백18(54.4%)명이 투표해 가장 낮은 투표율을 나타냈다.

정경대를 제외한 모든 단대에서 60%이상의 지지율을 얻은 천준호군은 당선이 확정된 후 "우선 이번 선거에 투표를 해준 학생들에게 감사하며, 다음 주부터 '도서관 공청회'를 열어 공약을 점진적으로 실천해 나갈 것"이라며 앞으로의 계획을 밝혔다.

한편 제7대 총여학생회 선거에서 단독후보로 출마한 윤해선(생물·3), 이경선(사학·4)후보가 총유권자 2천4백96명중 1천6백68명이 투표해 67%의 투표율을 보인 가운데 1천4백98명(89.8%)의 찬성을 받아 당선되었다. 윤해선양은 "총여학생회 선거에 이렇게 관심이 높은 줄 몰랐다. 남학생들도 총여학생회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겠다"며 당선소감을 밝혔다.

▲지난 5일 서울캠퍼스 총학선거 개표 장면

수원 단과대 선거 마무리

투표율 예년 수준, 체과대 73%로 최고

수원캠퍼스 단과대 학생회장 선거와 동아리연합회 회장선거가 지난 6일을 끝으로 마무리되었다.

각 당선자는 다음과 같다. (①이름 ②총유권자수 ③투표자수 ④투표율 ⑤득표수)

□의대:①홍상규(중문·3) ②9백26명 ③5백37명 ④58% ⑤찬성 4백62명, 86.1% □사회대:①기호2번 김상영(행정·3) ②1천95명 ③7백3명 ④64.1%, 무효4명, 기권1명 ⑤득표수 4백49 □자대:①기호2번 윤형식(환경·4) ②9백86명 ③6백12명 ④63.2% ⑤득표수 3백6 □공대:①조완희(산업공·4) ②2천90명 ③1천1백21명 ④53.6% 무효13명 ⑤찬성8백6명 □신대:①이혁희(식품가공·4) ②9백48명 ③6백19명 ④65.3% 무효7명 □체과대:①기호2번 조대연(체육·4) ②8백65명 ③6백31명 ④72.9% 무효 6명.

한편 동아리연합회장에 기호1번 박정문(토목공·2)군이 총 유권자 63개 동아리 1백86명중 1백22명이 투표하여 62표를 얻고 기호2번에게 2표 차이로 당선되었다.

이후 총학생회장 선거는 오늘 오후1시 인주광장에서 정책토론형식의 2차 유세를 마치고 10일부터 12일까지 투표가 실시된다.

과학재단, 연구지원 설명회

오는 18일 이공·자연계 교수대상

한국과학재단은 오는 18일 오후2시 제과대 세미나실에서 이공·자연계열 교수를 상대로 '기초연구지원사업 설명회'를 갖는다.

이번 설명회는 교수들에게 연구비 신청절차등의 제반 사항을 홍보하기 위한 것으로 강사는 정태헌 과학재단 연구관리부장이다.

김말애교수 안무상 수상

서울 무용제, '회기선'으로

지난 달 28일 끝난 제 14회 서울국제무용제에 본교 김말애(체대 무용과) 교수가 안무한 '회기선'(충타래무용단, 장승헌 작)이 대상을 차지하였다.

외국초청팀 2개 팀을 비롯 총 10개 팀이 참가한 경연부문에서 '회기선'을 안무한 김말애 교수는 안무상을 받았다.

치대 동창회 기부금 1억원 기탁

연구기자재 구입등에 사용될 계획

치과대학 동창회(회장 정제규)는 기부금 1억원을 지난 4일 조영식 총장에게 전달했다.

치과대학관을 설립한 총장에 대한 감사의 말과 함께 전달된 이 기금은 올해 2월중 개관한 치과대학관 건립을 기념하고, 치대 발전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서 총 3백20여명의 동문이 참가하여 3년여에 걸쳐 모아진 것이다.

이 기금은 1천7백여만원을 들여 이미 집행된 치과대학관 지하강당 보수공 비롯하여 ▲치과대학관내 도서관 칸막이 설치 및 시청각 열람실 개설을 위한 기자재 구입 ▲학생실습용 핸미경 10대 구비 ▲6층 학생자치공간 마화 ▲Film Recorder와 VTR설치 ▲컴퓨터 구입 등에 나머지 8천여만원이 쓰여질 예정이다.

이번 치과대학관 건립기념 모금이 끝났과 동시에 치대동창회는 장기적인 치대발전기금 조성을 위한 모금에 들어갔다.

한편 치대 발전기금 모금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규림(치대·교정과)교수는 "후배들의 교육여건을 개선시켜주고자 많은 뜻있는 동문들이 적극 나서주었다"며 이번 모금 경위를 설명했다.

K·H·P·C 정기전시회 열어

경희사진연구회(K·H·P·C)는 '제24회 정기전시회'를 오는 10일부터 3일간 교내전일로에서 갖는다. 보도, 풍경, 구도사진 등 총 27점이 전시되는 이번 정기전은 지난 6, 7, 8일 명동 유네스코회관에서 1차전시를 가진 바 있다. 이번 사진전에 김성열(신방·2)군은 "학우들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생활속의 사진들이 전시된다"고 설명했다.

93년도 신임교원 채용

총 19개학과 오는 20일까지 접수

양캠퍼스 교무처는 지난 2일 93년도 1학기 신임교원 채용공고를 발표했다.

서울캠퍼스 7개학과와 수원캠퍼스 12개학과 총 19개학과에 약간명씩 충원될 신임교원의 학과별 해당 전공분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서울캠퍼스

△사학과:동양고중세사 △화학과:유기합성, 물리화학 △생물학과:미생물학 △지리학과:지형학 △식영과:임상영양학 △기학과:음악학 △무용과:무용이론

□수원캠퍼스

△일문과:일어학 △러어과:러어러문 △회계학과:재무회계 △국제관계학과:외교정책, 동북아정치 △화학과:물리화학, 무기화학 △기계계열:동력학 및 진동, 열공학, 시스템 및 제어, 기계기구 해석 및 종합또는 공업계측(섬유기계) △화학공:공정제어 컴퓨터 시뮬레이션, 고분자 △토목공:토목계획 △산업공:경제성공학 △전자계산공:데이타베이스, 프로그래밍언어 △식품가공:식품화학 △산디과:환경디자인

한편 선발자격은 해당전공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단 무용과, 산디과는 석사학위 소지자 이상)로서 오는 20일까지 구비서류를 양캠퍼스 교무과에 접수시켜야 한다.

언론연구반 실원모집

정경대 언론연구반은 제77기 신입실원을 모집한다.

언론·방송직에 관심이 있는 2, 3학년 학생은 누구나 응시할 수 있으며, 원서 교부및 접수는 오는 18일까지 언론연구반에서 한다.

21일 오후 5시 정경대 212강의실에서 영어와 논문 시험을 치를 예정이다.

교양과정개편 논의 지연

단대별 학점 배분 이견 많아

교양과정연구위원회의 93년도 시행을 목표로 진행한 교양과정 개편에 대한 논의가 불가파하게 지연되고 있다.

교양과목 영역에 대한 부분은 제4영역 '역사와 철학'을 한국사로 개칭하고, 철학은 제3영역 '문학과 예술'에 포함시키기로 합의하였으나 공통교양, 계열교양, 자유선택의 단대 자율적 학점 배분 논의가 각 단대별로 이견이 제출되고 있어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다.

김진영(분리대교주·국문)위원장은 "학문이 다양화 되어 현 시점에서 교양과정개편은 당연한 것이며, 학생들의 의견도 일정정도 수렴해 학생들의 학문 연구에 도움을 주었으면 한다"고 교양과정 개편의 의의를 밝혔다.

행정학과 학술 심포지움

법대 행정학과 학생회는 오는 11일 오후5시 중앙도서관 시청각실에서 학술제의 일환으로 '한국환경행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의 심포지움을 개최한다.

수원 야간학과 토론제안서 전달

과발전 전망 및 교육여건 개선 상정

수원캠퍼스 야간학과(러어과·국제관계학과)는 지난6일 학교측에 양학과 발전전망과 특별전형에 대한 토론제안서를 전달했다.

양학과는 토론의 안건으로 야간수업 실시에 따른 제반 교육여건 개선과 학과 발전전망, 산업체 근로자 특별전형 실시 이후 예상되는 문제와 해결방안등을 상정했다.

이에 따라 소감상태에 있던 양학과의 문제는 다시 활발한 논의가 시도될 전망이다.

한편, 국제관계학과 학생회장 김경호군은 "현재 자체 역량상 더이상의 산업체 특별전형 반대는 무리가 따르고 교육부의 강제지침을 수행하는 학교당국의 입장을 일정정도 받아들이나 산업체 특별전형 줄대 분과의 기본원칙은 고수"라고 현재의 입장을 밝혔다.

'쓰레기 수거 현실적 조치 시급'

綴見錄

▼'지구의 환폐화'가 전 세계적인 관심사로 떠오르면서 각 나라에서는 쓰레기의 효율적인 처리와 재활용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폐지 수입국 1위'라는 오명을 갖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도 언론의 대대적인 홍보와 더불어 정부기관과 시민단체, 대학가 등 각 단체의 주도하에 서서히 자원재활용의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본교 총학생회는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쓰레기 분리수거 등의 실천적인 사업들을 벌여나가고 있다. 그러나 한통에 40만원이 넘는 수거함구입에 따르는 재정적인 부담과 홍보미흡으로 인한 학생들의 참여부족으로 큰 성과는 얻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서울캠퍼스의 경우 올해 6월 중순부터 총학생회산하 인권복지위원회(이하 인복위)가 구콤대건물과 도서관앞에 2통의 폐지수거함을 설치함으로 쓰레기 분리가 시작되었고 매주 2백~5백kg의 폐지를 자원재생공사에서 수거해가고 있다. 하지만 일부학생들이 담배꽁초나 깡통을 바림으로 인해 폐지 수거에 있어서 큰 불편함을 겪고 있다. 11월중순에는, 교내 폐지를 전부 수거하기에는 부족한 수거함을 보충하여 무료증정받은 분리수거통을 각 단대에 배치할 예정으로 인복위에서는 이에 필요한 자원봉사단을 지난 3일까지 모집했으나 지원자는 단1명뿐이어서 자원재활용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이 얼마나 저조한 가를 보여준다. 한편, 수원 캠퍼스의 경우 총학생회 주관으로 지난 9월말부터 분리수거를 실시하고 있다. 1회용품 사용절제, 폐지수거 등 교직원의 적극적인 참여에 비해 학생들의 관심은 부족한 편이다.

▼자원재활용은, 아직은 부족한 학생들의 관심을 이끌어내고 이를 생활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적극적인 홍보가 시급하다. 10월 대동제기간 서울에서 있었던 자원재생한마당 등의 행사를 통해 학생들이 쓰레기 분리수거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하고 수거함 설치 등 실무적인 사업을 벌여나가는데 필요한 재정을 확보해야 하는 것이다.

연기로 사라지는 문화의식

● 대학생활문화 개선 캠페인(Ⅱ)

양담배로 하루 5억 지출

외화가 연기로 타 없어지고 있다.

이는 다른것을 두고하는 이야기가 아니다. 바로 양담배로 타 없어지는 외화를 두고 이야기하는 것이다. 더구나 이러한 현상은 사회전체에서 뿐만 아니라 대학안에서 까지 만연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현재 미국의 '말보로'를 비롯한 약 20종에 가까운 양담배가 시판되고 있다.

이와함께 이의 소비율도 처음 양담배가 우리나라에 들어 왔을때의 판매고에 무려 10여배 가까이 성장하고 있으며 이의 증가율 또한 연 30%를 넘어서고 있다.

이를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보면 매출을 약 5%라고 치고 우리나라의 흡연이구를 1천만으로 상정하고 1인이 하루 평균 1갑씩 피운다면 양담배의 평균가격을 1천원으로 할 때 하루에 양담배 수입으로 쓰여져야하는 돈이 무려 5억원이라는 외화가 연기로 사라져 버린다는 이야기가 된다.

이제 느슨해진 우리의 양담배에 대한 경계심을 곤추세워야 할때다.

대학주보사

대학주보 생활문화 캠페인(2)

Why?

Why?

/外/煙/民/國

호기심입니까?
아니면
그냥 한번…
왜?
대답할 수 있습니까?

대학가에서도 이제는
국산담배 못지 않게 잘 팔린다는 양담배를
여러분!
한번쯤은 양담배 흡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외제라면 사족을 못쓰는 우리의 物慾
이제는 버려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간직하고 지킬 우리의 재산을
아끼고 사랑하는 참다운 지성인의 모습을
우리는 보여야 할때라 봅니다.

대학주보사